

## 21.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?

- ①어림잡다 - 어림재다
- ②변덕스럽다 - 변덕맞다
- ③장가가다 - 장가들다
- ④훔가다 - 흡지다
- ⑤기세부리다 - 기세피우다

## 22. 다음 중 표준어의 개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?

- ①눈엣가시, 석박지, 뒷꿈치, 돌멩이 <1개>
- ②이쁘다, 마실, 복숭아뼈, 창란젓 <3개>
- ③결판지다, 움츠리다, 마늘쫑, 주구장창 <3개>
- ④꼴차다, 끄적이다, 푸르르다, 손주 <2개>
- ⑤새치름하다, 누레지다, 삐진, 개기다 <3개>

## 23.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짹지어진 것은?

- ①덩쿨 - 눈두덩이 - 놀이감
- ②윗어른 - 호루라기 - 딴지
- ③계면쩍다 - 지리하다 - 삐지다
- ④주택 - 두루뭉술하다 - 허드레

## 24.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그는 우표 수집에 있어서는 만니아 수준이다.
- ②어머니께서 마늘쫑으로 담그신 장아찌를 먹고 싶다.
- ③그녀는 새침데기처럼 나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
- ④그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한 일은 우리에게 행운이었다.

## 25. 다음 중 표준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------|
| ①강남콩 | ②나룻터 | ③봉승화 |
| ④여지껏 | ⑤허드레 |      |

## 26.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?

- ①이 일은 세상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결과를 낳을 듯 싶다.
- ②내가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 노는 것 밖에는 해야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.
- ③이번 시험에서는 100점은커녕 50점 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.
- ④열 내지 열 한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 남아 있는 듯하다.

## 27.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?

- ①그가 고향을 떠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.
- ②이 건물을 짓는 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?
- ③옆집에서 잔치를 하는지 아주 시끄럽네요.
- ④빠른 시일내에 원상태로 복구하겠습니다.

## 28.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뜻한 바가 있었다.
- ②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었다.
- ③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.
- ④대학교는 커녕 고등학교도 다녀 본 적이 없다.

## 29. 다음 글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, 가장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?

'손윗사람'에서 '손위'는 '나이나 항렬 따위가 자기보다 높은 관계'라는 의미로 쓰였다. 그런데 이를 '손 위'라고 띄어 쓸 때에는 '손의 위쪽 부분'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.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띄어쓰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어휘가 있다.

- ①누가 길고 짧은지 한 번 대보자.
- ②감기를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.
- ③그는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.
- ④이번 이사할 집은 이전보다 큰 집이야.

## 30.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?

- ①솜이불 [솜:니불]
- ②직행열차 [직행열차]
- ③내복약 [내:봉약]
- ④막일 [망닐]

## 31.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?

- ①옳다는 [울타]로, 옳지는 [울치]로 발음된다.
- ②주다와 어미 -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.
- ③막혀는 [마켜]로, 맞힌은 [마친]으로 발음된다.
- ④가다와 어미 -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.